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nmaam

보고 듣고 가고 오는 게 모두 찰나이니

15면에서 계속

법이라 이런 소립니다. 이것을 한데 합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공법입니다. 그래서 평등공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등한 공법으로서의 그 생각을 잘 내신다면 꿈을 꾸고도 틀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영화 배우들이지 이 모습 가지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우리가 캄핑을 나왔다고 봅시다. 캄핑 나와서 한 철 살아나가는데 왜 어귀다툼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얘 겁니다.

이 모습은 벗을지언정, 옷은 갈아입을지언정 이 영원한 자기의 불성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佛)입니다. 그리고 교(敎)는 우리의 일체만물의 삶에 속한 것입니다. 살면서 배우고, 살면서 진화되고, 살면서 너그러워지고 좋아지기도 하고 날버러지기도 하고 이러한 작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머리밖은 사람만 불교를 믿는 게

계를 모르고야 어떻게 물질세계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소립니다. 우리 몸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면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들 잡수세요, 공양 올려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공양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밥 잡수실 때에 여러분 혼자 드십니까? 여러분은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입에다 떠넣기만 하지 그것을 섭취하는 것은 다 몸 속의 생명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양이요, 공양 공양이라는 그 자체가 한데 이 세계에 어우러지면 공식이 되죠. 부처님께서는 그때 그걸 원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모든 걸 순용하고 볼 흘려가듯 마다하지 마라. 또 가는 거 잡지 마라 이겁니다. 내 분수는 내가 알아서 개천을 건너될 때도 아주 못 건너될 때는 건너뛰길 말아야 하고, 내가 건너될 만 하다하면 건너뛰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무

이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먹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먹게 됩니다. 그것이 평등공법입니다. 평등하게 내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부처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것을 알고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잘못된 걸 알고 고통을 알고 괴로움을 아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괴로움을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나쁜 거 좋은 거를 모르면 저 짐승들 같이 먹고 사는 것만 알 뿐, 생전에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법이 불쌍하면 불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꼭 그런 대로 일이 생기죠. 여러분에게 만약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틀어 아는데, 꿈에 어떤 것이 보이든지 틀어 아는데' 하며 놓으세요. 역대로 내려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본다면 모두가 틀어 아니고 부모 아님이 없고 자식 아님이 없습니다. 자기 손가락 자기가 잘라 버리겠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진짜로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데 자기가 있으니 얼마나 믿음직할까? 보이는 데 자기가 있고, 보이는 데서 닥치는 것은 보이는

해. 너는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분들은 아버지도 됐다 오빠도 됐다 남편도 됐다 때로는 할아버지도 돼 줄 수 있어야 되고, 여자 분들은 할머니도 돼 주고 누이동생도 돼 주고 아내도 돼 주고 어머니도 돼 줄 수 있는 그런 여자여야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귀하게 생각이 되고, 한 그릇에 숟가락을 열 개든지 다섯 개든지 끼워 놓고도 그것을 퍼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소입니다.

행복한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건 풀 아시진 않겠어요. 잘 아시죠. 돈이 많고 보람 못 하게 살고 자식들에게 용돈 끊어지지 않게 주고 잘 입고 잘 먹고 하는 사람들의 애들 보면요, 큰일을 못해요. 남의 도움만 받기 때문에 도의, 도리, 의리를 자기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키우려면 절반씩 절반씩 줄여서 좀 인의롭게 '너 이런 것 강동 차.' '이러면 뭐가 어때.' 하지 마시고, '너도 물어봐야 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고생을 해봐야 고생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절약해서 잘 해나가자'고 말하면서 사랑하면

쁜 세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갈라서, 요즘 사람들이 가르고 나누기를 좋아하니깐 이 속에서도 의식들이 모두 갈라요. 가르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싸워서 절반이 죽게 되면 그냥 살이 굵는 거예요. 달리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백혈다, 암이다 하는 원인도요 다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잘 생각하세요. 이게 한 생각에 의해서 얼마나 너그럽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한 생각을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된다는 것도 말이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도 그렇게 되고,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마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고, 마음으로 인해서 경제도 이렇게 혼란이 오고, 마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싸움을 하고 자살을 하고 부모도 죽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걸요. 이 모든 걸 겁대기일 뿐이예요. 마음에 따라서 마구 움직여버리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 나갈 수만 있다면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하게 그런 문제들을 맞고 가는 분들 보면 참 기쁘요. 어긋나는 일이 없거든요. 잘못되는 일도 없구요. 자기가 하는 대로니까요.

자기 주인공 불성에 몰입해서 과거자기와 현재자기 상봉해야 보이지 않는에서 오는 것 대처해 살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요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가 바로 불교(佛敎)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밝아졌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내 몸통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를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가 없고 굴릴 수가 없으니라. 오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너 자신을 굴릴 수가 없으니라. 그 오신통 안에서 통을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공부를 할 때 이 마음은 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가 없어서 여기 서서 저기를 뛰어 올라갈래도 올라갈 수 있고, 이 지구를 벗어나서 금성일 갈 수도 있고, 우주를 갈래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라는 것에만 집착하고 생각을 하나씩 영 넓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력으로 펼 수가 없으니까 행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살기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을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보이지 않는 데서 오니까 대처를 못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자기의 근본 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부처다 이겁니다. 자아부처! 과거의 자기부처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기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바뀌고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다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되면서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모습 아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증득하시려면 자기 한데 몰입을 해서 즉 주인공이 불성이라는 불성한테 전부 몰입을 해서 과거 자기를 현재 자기 상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봉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하나만 보이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시려면 한번 이 전력을 보세요. 불을 켜 볼 때 켜지고 꺼지는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왔다 나가는 사이는 모르시죠. 못 보시죠. 그래서 전력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과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과학에서는요 꼭 물질로 봐야만 과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입니다. 바로 무의 법이요, 정신세계입니다. 간편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신세

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행을 못하신다면 무효입니다.

여러분의 몸통이, 즉 자동차가 가는 데 심봉 가운데 끼여진 쇠덩어리가 움직거리게 된다면, 바퀴가 굴러가게 된다면? 그 가운데 중심은 바퀴가 굴러가게 힘을 배출해 줄 뿐이지 움직거리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한테 있는 불성이라는 자체는 움직거리지 않고 부동합니다. 그러하되 힘을 배출해 줍니다. 그러니 그것이 불성이라면 불기둥이라고 해도 좋고, 주장자라고 해도 좋고, 자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고 일거수일투족 살



그림 · 최추현

한 생각을 잘못하면 전체가 잘못 됩니다

내가 가는대로 법이 되어야지 끌려다녀서야

아나가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일체가 다 거기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같이 하고 닥쳐오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감사해! 너만이 이렇게 길을 인도할 수 있잖아. 감사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지켜줄 수 있어. 너만이 닦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갈 수 있어' 하고 놓으면 됩니다. 어느 누가 회사에 나왔는데 이렇게 안되고 부도가 날 것 같고 해서 '너만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선 그렇게 모든 것을 마음 안에 다 관하고 몰입했답니다.

이게 몰입이라는 게 보인다고 이 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몰입을 해서 거기다 놓으면 그것이 큰 바다, 즉 지혜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계 각급에서 다 불이 스며들어서 한 아래로 모인다면 그게 큰 바다가 되죠. 바다가 되게 여기다 모이만 놓는다면 자꾸자꾸 모아져서 물로 화한단 말입니다. 물로 화하고 불이 타버리고 이렇게 화해서 큰 바다 즉 마음의 바다가 지혜로써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동적으로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를 합니다.

내 마음의 지혜바다를 자꾸 정화를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크고 작은 게 없

쌍한 줄 알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 겁니다. 그런데 전에 살아오면 관습이 남아서 습관에 처하고 욕심에 차고 이래서 그것을 과감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굴왕신이 들어서 저 집을 못 짓는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손이 있어서 이사를 못 간다고요. 지금 당장 집이 팔리고 집을 내놔서 이사를 가야 할 텐데 못 가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죠. 이걸 조그마한 문제라도 무척 큰 걱정입니다. 식구가 다 못 가게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던 여러분은 사서 고생하는 거죠.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간다 하면 그게 법이니까, 어떻게 남의 말에 끌려 다니니까. 내가 간다면 내가 가는 대로 법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끌려 다니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약한 탓이고 관습적인 습관에 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이리더랍니다. '내 손에 들어올 만 해가지 뭐 건드리지. 내 손에 들어올 만 하지 못하니까 못 건드리겠더라'고 귀신들이 모여서 그러더랍니다.

데서 해결하고, 안 보이는 데서 닥치는 건 안 보이는 데서 해결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만 믿고 남의 형상을 믿고 이름을 믿고 온통 빌려 다니니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모르면 기복이라도 해야죠. 하지만 아는 분들은 좀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실정을 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철 살다가 이 모습을 벗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철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두뇌에 즉 말하자면 인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되듯 말이에요. 입력이 돼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도 차원에 따라서 주어진다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짐승의 모습을 타고 났다면 짐승 대접밖에 더 받겠습니까. 속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모습이 그러니까 짐승의 대접밖에 못 받죠.

여러분도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여자의 모습으로 타고났으니까 여자의 대접을 받고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의 대접을 받고 짐승의 행동을 하고 그러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덧붙이기를 '히! 너가 그러면 나도 그러지. 너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이 주어지는 거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이런 노래 아시죠. 화가 나면 그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 화가 다 없어져요. 화나면 주인공에다 다 맡기고는 그냥 화내지 마세요. '화내게 하는 것도 너고, 화 안 나게 하는 것도 너야. 즐겁게 하는 것도 너'고 하세요.

나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떤 때는 몸이 쪼뼛뼛하고, '에이, 사는데 귀찮다'는 말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너 알아서 해. 내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게 할 수는 없어?' 그냥 세수하다가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요, '애들이 산책 좀 가자.' 이렇게 돼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먹는 대로 움직여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먹는 대로 길을 인도하게 돼요.

이 몸 속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타지에서 세균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생명들이 '너와 나는 물이 아니야.' 하고 감싸면 그것이 나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거쳐 인간되도록 이끌어온 자기인데 왜 못믿어요 그게 보배 예요

서 뜻으로 이렇게 관해 나가세요. 또 만약 잘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세요.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가설이 전 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관해 주면 그 자식한테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한 식구로 가설된 것 아시죠. 두루 부모라는 생각,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이어주는 가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한 대로 그렇게 지구 공부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실천으로 옮겨지고 '아 살기가 이만하면 좀 견 참겠구나 아. 이렇게 살기가 쉬운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끌랑질랑했구나.' 이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그렇게 묘하고, 자기가 자붙이고, 자기 뿌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못 믿어요. 자기 종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구요. 어떻게 나는 모든 게 미치고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탄 그림만 보고도 이 름만 보고선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세요.

연기법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 공부를 하는데 먼 곳에 사는 친척이 '아이고, 아무 개야. 나는 이렇게 해서 죽게 됐어. 피가 멈추질 않고 이렇게 병원에서 봐도 어디서 그러는지도 모르대.' 해서 '그럼, 알았어'라고 했을 때, 그 소리 듣자마자 그 사람 몸체는 거기 있지만 마음은 이걸로도 저걸로도 다 회해서 응신이 돼서 거기로 바로 갑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붓장도 없고, 벽도 없이 거기로 가서 바로 안에 들어갑니다. 영화에서는 문장이 그냥 속 들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서 한마음으로써 작용을 해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멈추게 되면 그 다음날 "전화하고 나서 바로 피가 멎었어." 이러면 "그래, 맞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관해봐. 내 책 한 권 보내줄게."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나중에 책을 보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관하며 살아서 외국에서도 편안하게 잘 산대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자기가 진짜 믿으면 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서 딴 사람 맘은 아주 잘 들어요. 왜 그러지 몰라요. 왜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소중함을 알아야 자기가 소중하게 되고 남들도 소중하게 봐요.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내 집에서 사는 강아지도 내가 발길로 툭툭 차면 남들도 툭툭 차게 됩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도록 이끌어 가는 자기인데 왜 못 믿어요. 그게 보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을 진짜로 믿고 자기 뿌리를 진짜로 믿고 거기에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무도 잎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뿌리에 매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잎새 하나도 버리지 않고 뿌리에 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